

제6장.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

제12항. [ㄱ, ㄷ, ㅂ]으로 나는 받침소리 뒤에 오는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- 국밥[국뽕], 말사위[말싸위], 곰돌[곰똥]

- 흙밭[흑뽕], 꽃밭[꼇뽕], 었다[업따], 밟기[밥끼]

제13항.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의 받침 <ㄴ, ㄸ, ㄹ, ㅁ> 과 <ㄹ> 로 발음되는 받침 <ㄹ, ㄹ, ㄹ> 뒤에 오는 토나 뒤붙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- (아기)를)안다[안따], 안고[안꼬], 안기[안끼]

- 앓다[안따], 앓고[안꼬], 앓기[안끼]

- 옴다[옴따], 옴고[옴꼬], 옴기[옴끼]

- (나무)를)심다[심따], 심고[심꼬], 심기[심끼]

- 굶게[굶께], 앓고[알꼬], 훑다[훑따], 훑기[할끼]

제14항. 다음과 같은 경우에 <ㄹ> 받침 뒤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.

1) 한자말에서 뒤의 순한소리가 <ㄷ, ㅌ, ㅈ>

인 경우

례: 발동[발똥], 결실[결싹], 발전[발췌]

2) 일부 고유어로 된 보조적단어가 《ㄹ》 뒤에 오는 경우

례: 열개[열깨], 여덟그루[여덜꼬루],
(집)열동[열똥]

3) 규정토 《ㄹ》 의 뒤에 오는 경우

례: - 들것[들꺼], 갈데[갈떼]. 갈 사
람[갈싸람]
- 들가[들까], 올지[올찌], 볼듯[볼뜨]

제15항. 일부 한자말들에서 《적(的), 성(性), 법(法), 권(權, 券), 점(點), 건(件), 가(價), 과(課, 果)》 등의 한자말은 일부 제한하여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- 당적[당쩍], 시적[시쩍]
- 혁명성[형명쌩], 전투성[전투쌩]

- － 헌법[헌뻬], 료법[료뻬]
- － 주권[주뀐], 구매권[구매뀐]
- － 사건[사뀐], 조건[조뀐]
- － 물가[물까], 시가[시까]
- － 내과[내과], 외과[외과], 자재과
[자재과]

제16항.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순한소리앞에 끼여나는 경우는 그 순한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.

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

례: － 된벼락, 센바람, 봄가을, 날
바다, 별세계

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

례: － 눈두렁[눈뚜렁], 손가락[손까
락], 손등[손똥], 안사람[안
싸람]

－ 전주대[전주때], 나루가[나루
까], 강가[강까], 그믐달[그
믐딸]

제17항. 말줄기의 끝받침 《ㅎ》, 《ㄴ》, 《ㄹ》 뒤에 오는 토의 순한소리 《ㅅ》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졸소[죤쏘], 많습니다[만쌌니다], 울
소[올쏘]